

■ 보건복지부 '2013~2017년 전국 지역별 의료 여건' 조사결과 발표

# 제주지역 중환자들 생존위해 서울행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률 제주도 85%·서귀포시 29%  
제주도민 입원 사망비·재입원비 기준 1 넘으며 열악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서울 지역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실제 사망한 환자 수는 정부가 산출하는 '기대 사망자 수'보다 7% 적었던 반면, 제주지역은 오히려 10%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 의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입원 사망비와 재입원비 등을 포함한 '지역별 의료 여건'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중 '입원 사망비'는 기대 사망자 수 대비 실제 사망자 수를 나타낸 것으로 의료기관별 의료 격차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어느 병원에서 1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면 보건복지부는 이 10명 환자들의 나이와 앓고 있는 병의 중증도를 각각 고려해 이 중 몇명이 사망할 지를 추정하는 기대 사망자 수를 산출한다. 10명의 환자 중 기대 사망자 수가 5명이고, 또 실제로 5명이 사망했다면 입원 사망비는 '1'이다. 기대 사망자 수는 5명인데 이중 4명이 실제로 사망했다면 '0.8'로 표시된다.

입원 사망비에 대한 평가는 수치에 따라 >0.84 이하 우수 >0.84~1.00 보통 >1.0~1.16 열악 >1.16 초과 매우 열악으로 나뉘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기록한 제주지역 입원 사망비는 1.1이었다. 제주는 기대 사망자보다 실제 사망한 환자가 10% 가량 더 많아 의료 수준이 '열악'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입원 사망비가 가장 적은 지역은 0.63을 기록한 세종시다. 이어 전북(0.9), 강원(0.98), 전남(1.01) 등의 순으로 입원 사망비가 적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당수 도민들이 도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는 것을 꺼리고 있다. 주민이 자기 거주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이용해 치료를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률 조사'에서 제주시는 84.8%에 그쳤고, 서귀포시는 제주시의 3분의 1 수준인 29.0%에 불과했다.

지속적인 건강관리 척도를 보여주는 재입원비(퇴원 후 30일 이내 예정되지 않은 재입원) 조사에서도 제주지역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제주시의 재입원비는 1.04로 '열악' 서귀포시는 1.13으로 '매우 열악'으로 평가됐다. 재입원비에 대한 평가는 수치별로 >0.88 이하 우수 >0.88 초과~1.00 이하 보통 >1.00 초과~1.12 이하 열악 >1.12 초과 매우 열악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지역별 의료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한편 예산을 늘려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깊어가는 가을... 만개한 국화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11일 제주도의회 청사에 만개한 국화가 전시돼 민원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시 수능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제주시는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행위 등 탈선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청

소년 유해업소 대상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학교주변이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소주방과 호

프·카페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에 초점이 맞춰진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및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제공행위이며 개인위생관리 및 조리장내 식재료 보관·취급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

관리도 함께 점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며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낙석 우려 등 안전문제로 출입이 통제된 서귀포시 돛배낭골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태윤기자

## '출입금지' 팻말 하나 세우고 끝?

낙석 위험 '돛배낭골' 탐방객 통제·관리 허술

낙석 우려 등 안전 문제로 출입이 통제된 서귀포시 돛배낭골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돛배낭골에 출입할 수 있는 콘크리트 계단은 출입이 통제된 이후 보수·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데다 곳곳에 균열이 생겨 이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허술하게 설치된 출입통제 시설을 넘어 해당 계단을 통해 돛배낭골을 찾고 있는 등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출입통제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찾은 서귀포시 대륜동 소재 돛배낭골 입구. 이곳은 수년 전 낙석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돼 출입이 통제된 곳이지만 입구에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은 '낙석위험 출입금지' 팻말이 부착된 나무판자가 유일했다. 또한 나무판자도 허술하게 설치돼 있어 성인 남성이 허리를 조금만 숙이면 쉽게 드나들 수 있었다. 특히 돛배

낭골로 향하는 콘크리트 계단에는 균열이 생겨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고, 계다가 계단 주변에는 절벽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큰 바위들이 눈에 띄었다.

인근 마을 주민은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면 해당 구간에 대해 확실하게 통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단을 보수하고 낙석 방지 펜스 등을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한 뒤 재개방 해야할 것"이라며 "이도저도 아닌 행정의 통제 방법이 주민과 탐방객에게 혼란만 가져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출입 통제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 출입통제 시설을 강화해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통제 이후 기존에 설치된 콘크리트 계단의 철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전통 포구 2곳 복원 정비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할 것"

제주지역 중요 어업유산이자 어업유산인 전통포구 2곳이 복원 정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로부터 조상들의 어업 활동을 위해 테우 등 선박 등을 계류하거나 정박장소로 이용해 왔던 전통포구 복원을 위해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삼양동 성장포구와 표선리 한지동터우개 포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통포구 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삼양동 가름성장포구는 포구 입구의 도래길(작은 방파제) 복원과 포구 돌담 정비 및 도대불 복원 등이 이뤄진다.

표선리 한지동 포구는 물양장 보강을 비롯해 방파제 돌담 정비, 천수 시설 등이 확충된다.

한편 도는 전통포구 복원 정비를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하고, 시설물 이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1월 중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 2월 준공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성공개최를 축하합니다.

제주시농협

진심의 손에서  
안심의 손까지

농업인에게 든든함을! 소비자에게 건강함을!

진심의 손으로 키운 농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농협 하나로마트가 진심과 안심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

하나로마트 제주점 729-1551 식재료매장 729-1624 하나로마트 오라점 747-6260 하나로마트 노형점 750-6500